

TV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월드컵 예능 프로 '예년만 못하네'

SBS 단독중계에 시청률 부진... KBS·MBC는 시사·교양 집중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열기는 뜨겁지만, 월드컵 현장에서 응원 소식을 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예년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KBS의 '남자의 자격'은 매년 월드컵 때마다 현장에서 응원전을 펼쳤던 이경규를 중심으로 출연진을 대거 파견했지만 13일 방송에서 16.1%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데 만족해야 했고, 월드컵 현장 분위기 전달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를 통해 세 나라의 전력을 비교, 분석했으며 '첫 원정 16강을 향해'에서는 한국팀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짚었다.

앞서 SBS는 지난 5월 말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27.5%의 확률게임-대한민국은 월드컵 16강에 오를 것인가?' 편에서 월드컵을 다루기도 했다.

KBS는 월드컵 개막 직전 아프리카 국가들의 잠재력을 분석한 '아프리카 파워'를 내보냈으며 MBC도 '100분 토론-월드컵! 광장을 말하다' 편에서는 월드컵 응원 문화를 다뤘으며 국제시사프로그램 'W'는 남아공 현지 취재를 통해 월드컵의 명암을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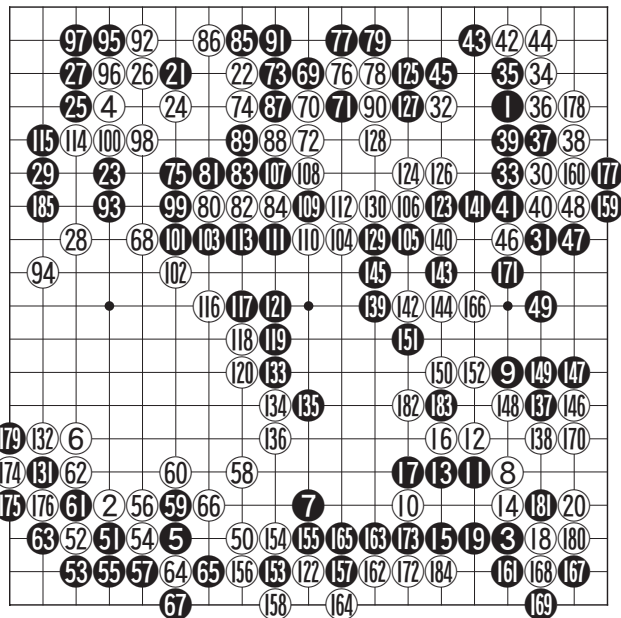
연습장

제19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능비독대인

이덕수 5단, 관록의 승리

1회전 총보(1~185)

白 이덕수 5단 黑 전주영 5단 (변호사회) (국민은행)



이 바둑은 출전자 중 최고령인 변호사 회 이덕수 5단과 처음 출전한 국민은행의 강자 전주영 5단의 대결로 특히 관심을 모았다.

패했다 되었다. 전주영 5단은 초반의 우세했던 순간에 너무 취한 때문인지 정작 승부처에서는 헛발질을 하고 만 것이다.

반면 이덕수 5단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백 116부터 백 40으로 치받는 등 속수를 연발할 때만 하더라도 흑 49까지 흑이 워낙 두터워 모양이 좋았다.

그러나 상반의 접전에서 97에 내려서지 않은 흑 95가 결정적인 실착이었다. 중앙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흑 111, 113으로 몰아간 수도 경험부족의 한계를 드러낸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세계의 교육현장', '일리의 뒤죽박죽 동화여행', '방귀대장 뽕뽕이(재)',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like '수능특강 선택-고3 (윤리)', '수학(하)(재)',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like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4:50 Sing Sing 영어동요', etc.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워 한자 이야기

My skin is dry and rough. 제 피부는 건조하면서 거칠어요. A: My skin is dry and rough. What cosmetics do you think suit my skin type? B: Well, how about using this face lotion? It gives natural moisture and a fresh feeling to your skin.

あと1時間(じかん)も待(ま)つのか. 앞으로 1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A: 今2時(じ)10分で、次(つき)の電車(でんしゃ)は3時10分だ. B: ええ? あと1時間(じかん)も待(ま)つのか- A: うん、どうしようか? バスなら2時半(はん)だけけど、バスは時(とき)どき、すくく遅(おく)れることがあるからね、今日は道(みち)が(こ)んでいるし.

找不着北. 갈피를 잡지 못하다. A: 走得好快呀, 又迷路又迷路.. B: 你跑太快了, 弄地就我找不着北了.. A: 你跑得好快呀, 又迷路又迷路.. B: 你跑得太快了, 弄得我就找不着北了..

朝三暮四(조삼모사). 아침 조, 석 삼, 저물 모, 녀 사. 조삼모사(朝三暮四)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으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는 것, 또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의 비유에 이르는 말이다. 송(宋)나라 때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은 원숭이를 무척 좋아해서 많은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다. 먹이를 줄어야 할 형편이 되자 원숭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앞으로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줄 생각인데 어떻게겠니?" 그러자 원숭이들은 아침에 세 개로는 배가 고프다고 화를 내며 난리쳤다. 이에 저공이 "그렇다면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면 어떻게겠니?"라고 하자, 그 말을 듣자 원숭이들은 박수를 치며 모두 기뻐했다.